통권 133 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2002. 11. 14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법 개악안 폐기! 비정규직 철폐! 보수정치 타파!"

[사진: 민중의소리]

'2002 전국 노동자 대회' 가 대학로에서 3만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과 경제특구법을 즉각 폐기할 것과 노동탄압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요구했으며, 오는 14일 경제특구법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 총력투쟁을 포함한 대정당,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열은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회장 • 2 / 출소장기수 안희숙 선생님을 찾아서 하재광 갈현동후원회원 • 4 / 한청 정대일 사무처장의 부인 신진영님을 찾아서 이승미 편집위원 • 6 / 유병문 · 문숙희 부부회원을 만나서 이창희 간사 • 9 /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님께서 보내온 편지 • 12 / 한총련 양심수 윤민호님께 보내는 편지 고광희 간사 • 13 / 면회기 이문희 회원 • 14 / 역사기행기 김미성 회원 • 16 / 회원교육강좌 보고 왕준영 회원 • 19 / 특집 '경제특구법 반대' • 20 / 논단 '북핵개발 논쟁의 진실' 강정구 교수 • 24 / 나의삶 나의일터 -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관 박수분선생 • 26 / 시사만화 • 27 /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 29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0 / 재정보고 • 39 / 회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그 누구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람의 건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한총련 김대원 방북대표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치료케 하라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전주지검 김경진 검사는 전주교도소장이 건의한 김대원 한총련 방북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데 이어 11월 4일 김대원 대표를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감을 명령한 것으로 이날 전주지검을 항의방문한 민가협과 김대원대책위 대표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누구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병들어 앓고 있는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을 빌리지 않는다 해도, 대학병원에서 16일동안 정밀검사를 하여 '시급히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에 따라 교도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담당검사가 이를 묵살하고 또 다른 징역일 수 밖에 없는 치료감호소로 보냈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원 대표는 2000년 8월 14일 방북대표 임무에서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국정원에서 20일동안 강압수사를 받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속박당한 조건에서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20~24일까지 의왕시 계요병원에 입원 '정밀진단을 통한 종합적 진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11월 24~12월 31일까지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었다. 서울구치소에 돌아온 뒤에도 재판을 계속 거부하여 결석재판(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으로 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항소포기). 이때 김대원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항소를 포기한 일은 정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피의자로서의 자기방어권을 옳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중단하고 정신적 이상증세를 치유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옳았다.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되자 2001년 3월 12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오늘까지 있는 동안 김대원 대표의 이상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뒤에 전북대병원의 소견에서도 밝혔듯이 간헐적으로 보이는 극단적 감정변화 및 타인에 대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대인관계의 회피등으로 교도소에서도 관찰보호를 해야했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민가협 목요집회에 나와서 김대표가 중증 정신장애라며 석방하여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었다. 필자도 김대표를 만나보려 했으나(2001.10.10) 끝내 거부당한 채 당시 함께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산연합의 이성우대표를 면회하여 김대표의 증상이 심각했음을 확인했고 보안과장, 교도소장 면담에서도 같은 의견을 들었었다. 필자는 한 젊은이의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우려할 만한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속박과 통제가 있는 수형생활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며 형집행정지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뒤늦기는 했지만 김대원 대표는 교도소 당국의 주선으로 2002년 9월 9~24일까지 16일동안 전북대학병원에 입원 정밀검사를 받았었다. 그리고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을 내렸다. 병원의사는 소견서에서 '간헐적으로 긴장성 혼미양상의 행동변화나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부증 양상을 보였고 …… 정서적으로는 억압이 있어 우울하고 억압이 깨질때는 폭발할 수 있는 정서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이 심한 상태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정신운동속도의 지체, 주의집중력 장애소견과 간헐적인 긴장성혼미나 거부증 양상의 극단적 감정변화를 동반하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 이로 인해 적응상의 많은 갈등이 있고 향후 피감정인의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충분한 기간동안의 정신과적 관찰 및 평가와 함께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재소수형생활이 어렵고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주교도소가 1년 6개월이 넘게 재소생활을 관찰보호하면서 그리고 전북대학병원의 소견서에 따라 김대원 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전주지검은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 이유로 다음 사항을 들었다. ① 김대원 대표에 대한 추가감정 필

요 ② 대검찰청과의 의견조율 ③ 형기의 절반이 남아 있다는 점 ④ 공안사범이란 점 등이었다. 검사의 이러한 태도는 가족을 비롯한 김대표의 증상을 염려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했었다. 앞날이 창창한 한 젊은이이며 자칫 한 생애를 망칠 수도 있는 시급한 환자를 두고 안이한 형식논리로 대하는 검사의 불허조치는 사람 세상의 도리는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침의 인권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조치였다. 검사의 불허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추가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공안사범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할 것이다.

먼저 추가감정 문제이다. 담당검사는 권위있는 대학병원에서 16일동안 전문적인 감정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1년 반 넘게 관찰보호했던 교도소 당국의 의견까지도 외면해 버렸다. 김대원 대표는 2000년 11월부터 이상증세를 보인 뒤 2년이 다 된 오늘까지 그 증상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다. 계요병원 공주치료감호소, 전주예수병원을 입·퇴원한 그 자체가 그의 증상이 심각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엇을 더 감정하겠다는 것인가.

다음으로 냉전적 공안시각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 부당성이다. 권위있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재소생활을 지켜본 교도소당국의 의견은 형집행정지 결정의 절대적 토대가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을 토대로 하지 않고 상급공안당국과 의견조율을 한다고 하고 형기를 말하고 심지어 공안사범이기 때문이란 노골적인 말까지 했다.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아픈 사람을 두고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정과 사회복지를 기본목적으로 해야할 재소자 처우방침이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응보형 징역을 꼬박이 살려야겠다는 고의성마저 보이고 있다. 지금은 6·15공동선언시대이다. 오늘 남과 북사이엔 당국자 대화를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강산관광객을 빼고서도 올 한 해 동안에만 9000여명이 이북을 다녀왔다. 이들은 남북사이에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더 나아가 자주와 통일의 길을 내기 위해서 다녀왔었다. 김대원 대표는 이들보다 일찍이 조국 분단을 아파하며 그 활로를 찾으려는 애국심에서 평양엘 갔었다. 그러하여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한 셈이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원심에 불복, 항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정신적 불안증상때문이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1심형량만으로 오늘 형기를 따지는 것도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한마디로 재소환자 처우에서 국가보안법 관계 때문에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어떠한 형사피의자라 하더라도 병든 사람은 그 무엇에 앞서 병부터 고쳐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건강권은 바로 기본인권이기도 하다. 아픈 사람을 토대로 할 때 건강권은 바로 생명권이기도 하다. 아픈 사람은 잘못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정신장애자는 자칫 정신적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진다' 라고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록 형사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제규약은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한다' 라 했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 했다. 여기서 건강권은 형사피의자로서의 기본권 제한 이전의 인간기본권이다.

최근 서울지검에서 살인혐의 피의자이지만 고문 등 강압수사로 숨진 사건과 관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는 등 검찰내부를 뒤흔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바로 필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국가보안법을 실정법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대원 대표의 건강권-생명권은 국가보안법 이전의 인간의 기본권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원 대표가 왜 이러한 이상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의 인간적·내면적 고뇌의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 그는 밀실에서의 강압수사와 수형생활에서의 속박·통제 조건에서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치료감호소라 하더라도 그에겐 또 다른 감옥일 뿐이다. 모든 속박과 통제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학우들을 어떤 장벽도 없이 함께 하며 자유를 느끼게 하는 믿음을 쌓아가게 해야 한다. 바로 형집행정지로 석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김대원 대표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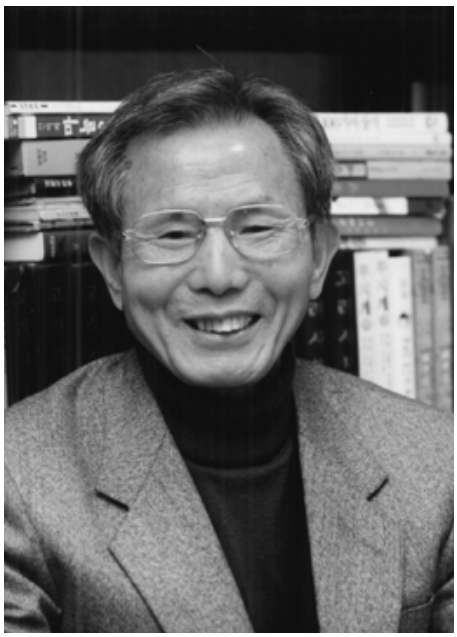
- 간경색, 폐결핵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박경순, 이창호씨를 석방하여 치료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해방은 고난의 이슬맺힘

하재광 갈현동후원회 회원

지금은 어느 누구의 노래처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자, 초겨울. 소리없이 맥없이 떨어지는 노란 단풍잎을 맞으며 진동한동 도시를 걷는 사람들. 거리엔 설핏한 몇몇 청소년이 지난날 우리의 형들처럼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있습니다' 고 무심히 외치고 엄마손을 포근히 감싸 쥔 동심은 동네앞 가게를 지날 때 마다 하얀 호빵에 우리의 어린시절이 그랬듯 시절의 추억을 담는다. 계절은 그렇게 우리의 추억을 반복해 퍼올린다. 가끔은 고통스럽게.



사람을 찾아서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중순. 이맘 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황사현상이 온종일 도시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까지 몰고 다녔다. 기상예보관은 기상관측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떠들어 댔다. 뿌연 먼지를 머금고 '출소 비전향 장기수' 안희숙 선생님(73세)을 만나기 위해 사당네거리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회색빛 우울은 사라지고 미묘한 긴장감이 싸목싸목 밀려들었다. 낮의 피곤함을 미쳐 떨쳐 버리지 못하였고 취재라는 적지않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기에...

인당수에 뜬 연꽃

'해방 직후 옷만을 바꿔 입은 착취의 모순에 저항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투신/민주청년동맹 활동/민애청 사건으로 구속/6·25 전란시 빨치산 활동으로 15년형 언도/폐결핵/1976년 오월 다시 사회안전법으로 구속/영양실조로 일곱살 난 어린 딸 잃음/혼잣손으로 애면글면 애쓰며 남편을 기다려온 아내를 위해 북송 포기/비전향 장기수라는 전대미문의 꼬리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고난의 흔적. 드라마(?) 같은 삶이 진정 존재하냐고 묻거든 안선생님의 삶을 당당히 말해주리오. 이렇듯 안선생님은 평생을 사람사랑과 해방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 오셨다. 폐결핵으로 고통받으실 때도 어린 딸을 영양실조로 먼저 떠나보내셨을 때도 결코 쓰러지지 않으셨다. 고난은 '혁명의 씨앗' 이요 '해방의 씨앗' 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에. 선생님은 그 고난의 과정속에서 희망을 쟁취해 오신 것이다.

"북송 포기가 마음에 걸리지는 않으신지요?"라는 내 얄팍한 질문에도 "정치성/도덕성/인간성은 별개가 아닌 통일적 개념"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니 유리처럼 얇은 내 지성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다.

크고 작은 그 무엇

"즐겨 보시는 티브이 프로그램 있으세요?",

"사극을 즐겨 봐."

특히 김두한의 삶을 다루고 있는 '야인시대' 에 관심

이 많으신 듯 했다. 친일파 미화라는 적지 않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독립군의 활약상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시는 듯 했다. 가장 최근에 보신 비디오 제목은 '임꺽정' . 지나새나 '자주/민주/통일' 의 염원을 일상의 틀에서조차 놓지 않으시려는 선생님의 순수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상과 운동을 은연 중에 분리하는 습관에 젖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일침을 가하는 듯. '반미' 를 외치면서도 제국주의 상품의 홍수속에서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럼에도 선생님은 "좀더 알았더라면"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했더라면" 이라고 당신의 부족함을 겸손되이 아쉬워 하셨다.

끝없는 사랑

'청년이여 앞길을 바라 보아라' 는 어린 시절 선생님께 깊은 충격을 던져준 책이다. "부서져도 다시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바위를 내리치는 파도" 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그만큼 선생님은 '운동의 통일성/민중의 통일성' 이 시대적 모순을 헤치고 참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노둣돌임을 믿고 계시며 그러한 통일성은 '반미' 를 극복케 하고 그로 인해 완전히 회복된 '민족의 주체성' 은 '역사의 모범' 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거듭 설파하셨다. 취재가 끝난 후에도 강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뜬금없는 질문

"선생님, 사모님과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또다시 객쩍은 질문을 드렸다. 혹시라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일상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지없이 내 기대는 무너졌다. 선생님에겐 일상이 곧 실천이요 실천이 곧 일상인 것을. "행복이란 개념은 참 모호하지.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이 있는 것이겠지" 역시 선생님다운 답변이었다. 한편으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사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애절한 사랑을 애써 숨기시는 것 같이 느껴져 괜한 질문을 드린건 아닌지 후회가 일어왔다. 이미 사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북송포기를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셨던가?

뒤뜰에서

무척 혼란스러운 대선정국. 안으로는 권력 그 자체만을 쫓는 몇몇 무리가 민중을 기만하고 있고, 밖으로는 호시탐탐 아름다운 조국강산 한반도를 '불바다' 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의 음모가 좀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민족과 민중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는 연대와 화합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할 것" 을 선생님은 주문하신다. 또한 '민족의 화합' 을 대외적으로 자신있게 보여줌으로써 '합법적 도덕성' 을 쟁취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우리 스스로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존재의 이유' 가 오로지 사람사랑/조국사랑인 안희숙 선생님! 시대적 오류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모범! 선생님과 사모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돌세례를 받기도 했던" 어린 따님의 명복을 뒤늦게나마 빕니다. 확신컨대, 그 어린 따님은 조국해방의 땅에서 찬란히 부활할 것입니다.

국보법의 족쇄를 늘 각오하는 것이 과연 당연지사인가요?

이승미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미국의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모두 확보했다는 보도로 가슴에 찬바람 한 줄기가 휙하니 지나가는 느낌이다. 여전히 한반도는 '미국의 재채기 한번에도 감기에 걸려버리는' 상황 속에 계속 놓여져 있게될 것인지… 때 이른 겨울맞이에 마음까지도 한기가 스미는 듯하다.

반공이데올로기의 뿌리내림으로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긴긴 시간 이어져오고 있는 우리 현대사에 통탄을 자아내게 한 11월 역사강좌가 있던,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있을 신진영님과의 인터뷰 준비 일환으로 인터넷을 뒤져 한청 전상봉 의장의 공소장을 열어보게 되었다. 그중 눈에 들어온 한 대목,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정대일님과 신진영님 - 신혼여행지에서

처음 접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대목에 또 새삼스레 분개한 건, 나 스스로도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일정정도 망각한 채 지내온 탓이 아니었을까 싶어 쓴웃음을 지었다.

구속된 한청 지도부 3인 중 사무처장 정대일님의 부인 신진영님을 만난 시간은 저녁 8시경. 인터넷에 올려졌던 사진에 대한 기억으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그녀는 예상외로 너무나 밝고 붙임성도 있어 마치 오래된 인연인 것 마냥 편했다.

밝은 모습이 보기에 참 좋다고 하자 그녀는 종종 듣는 얘기라면서, "형의 구속으로 서로 헤어져 있어 안좋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이 잘 지낼거라는 믿음이 있고 제가 어찌 살길 바라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했다. 자신은 끝까지 운동적 삶을 살 것이며 이는 정대일님과 삶을 함께 하기에 더욱 가능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소주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참으로 긴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도중에도 조용히 전해져오는 그녀의 숨겨진 고뇌를 중간중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로 서른다섯이 된 정대일님은 이번이 두 번째 수감생활이라 한다. 97년 말 한총련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99년 8·15때 60일의 잔형을 남기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니, 이번에 무죄석방 아니면 최소 60일 이상의 실형을 살아내야 한다. 89년 인하대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총학생회장과 인부대협 의장을 역임했고, 2000년 12월에 신진영님과 결혼해 인천에서 살고 있다. 1년여 간 현장노동자로 일하였고 인천지역의

'푸른청년연대'라는 청년단체 대표로서 사무실 상근을 하다 올해 2월경부터 한청 사무처장을 맡아 하게 되었다.

"한청 간부를 맡은 지도 얼마 안되었고 해서 구속대상에 형이 포함될 거라는 예상은 거의 하지 못했었어요… 형이 2남1녀 중 장남인데, 혼자되신 후 20여년간을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시어머님 생각하면 맘이 참 안좋습니다."

영등포에서 냉면전문점을 하고 계신다는 정대일님의 어머님 얘기를 신진영님은 여러번 반복해서 했다.

91년에 인하대 수학과에 입학한 신진영님은 함께 운동했던 한 선배와의 오랜 연애에 실패한 후 이어진 힘든 시간들의 막바지에 들어설 무렵, 당시 구속되어 있던 동아리 선배 정대일님의 면회를 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옥바라지까지 하게 되면서 점차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헤어진 후 운동 전반이 모두 부정되면서 거의 1년간을 방황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만일 제가 그 선배와 삶을 함께 하게 되었더라면 지금의 모습을 갖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당히 소극적, 의존적이었거든요. 대일이 형은 그런 제게 삶도 운동도 주체적으로 하게끔 늘 깨우침을 주었어요. 2년여의 결혼생활 과정이 곧, 선후배 관계를 떠나 서로가 동등한 관계로 변화 되가는 과정이었고 상호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주체적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지요."

사랑과 믿음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임을 또 확인하게 해준다. 이제는 대지에 굳게 뿌리박은 들풀처럼 단단하고 견실해 보이는 그녀의 마음 속엔 바로 정대일님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이리라.

올해로 서른살이 된 신진영님은 99년 말경부터 월간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잡지사의 기획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시작한 이 잡지는 이젠 청년통일광장, 반미여성회, 노농이야기, 문예 등 4개 단체가 전국화를 꾀하며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한다.

"형은 제가 바라는 만큼 말해주고 이해해주곤 했어요. 늘 좋은 의논상대가 되주었는데… 옆에 없으니 허전하지요" 하는 그녀는 정대일님이 보내준 첫 편지를 받았던 때의 그 떨림을 잠시 상기했다. '내가 없다고 사업을 방기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안되고…' 하는 내용들이 주였다고 하는데, 신진영님은 그래도 편지가 잘 안오면 화가 난다며 너스레를 떤다.

"형이 처음 구속되었을 때, 수감되기 전과 출소 후의 바깥 상황이 많이 변해 있어 그에 잘 순응을 못한 형은 사회부적응자(?)라며 놀림을 받았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지고 유해졌다 싶었는데 그만 또 들어갔지 뭐예요. 참 안됐어요" 하는 그녀의 표정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신진영님을 진실로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의 국보법 철폐투쟁에 대한 인식인 듯하다.

"사람들이 운동적 삶을 살아가는데서 '구속'에 대한 각오를 그저 당연시하고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속상해요. '국가보안법'은 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의 철폐 투쟁을 정말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 '구속'의 여건과 환경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급기야 그녀의 그 큰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바로 전날 공소장을 보며 씁쓸히 웃었던 내 자신에 대한 기억이 이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앞으로 국보철 싸움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고, 할

일이 많으니 힘들어하거나 중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살겁니다." 덧붙여, 정대일님 옥바라지도 잘 할거라는 그녀의 모든 결심들이 헛되지 않기만을 바래본다.

문득 어느 TV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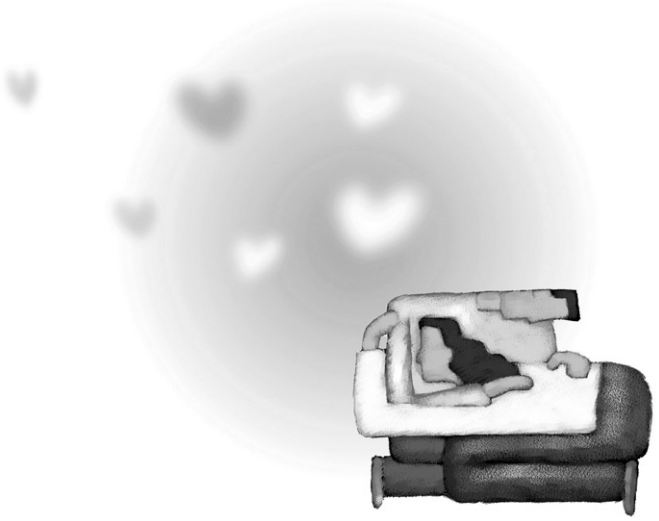
'누가 위에 앉건 마찬가지야. 역사 이래로 백성을 위해 왕이 된 자는 별로 없었다. 왕을 위해 왕이 될 뿐이지. 그리고 백성된 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위에서 무슨 난리굿을 쳐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백성의 도리란다. 위가 제아무리 흔들려도 나라는 살아있지만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라도 성치 못하니까 말이야.'

반어적 의미로 전달하고자한 이 대사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느 지점에 가야 도리를 다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게될 것인지…

착하지 못한 자가 착한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 하고 악하지 못한 자가 악한 척하는 것을 위악이라 한다는데, 과연 백성들이 위악을 보여야 하는 때가 언젠가는 있게 되는 것인지… 이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기 위해 함께 위악을 한번 행해봄이 어떨지…

11월 8일 오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한청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 석방 범국민 대책위 발족 및 사회지도급인사 1000인 선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대통령후보 공개질의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다. 한청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한청 회원들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고무적인 기운이 구속된 3인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날까지 지속되길 기대해본다.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신진영님은 전상봉의장의 부인 강병식님과 고향이 같다고 하면서 임신한 그녀에 대한 걱정의 말을 조심스레 꺼낸다. 다음엔 셋이 함께 만남을 갖자하며 아쉬움과 염려를 뒤로한 채 돌아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군가 거저 가져다주는 게 아님을 다시 상기하며….



숙희와 병문이의 사랑이야기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대학에 들어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참 좋은 후배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최근 9월 29일 결혼을 했다. 그들은 바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인 유병문과 문숙희이다.

분단의 사랑

-중랑경찰서 앞에서

나는 수배자
그대는 구속자
열 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
저 찻길 하나가 우리의 분단선
내 수배전단이 나붙은 길 건너 중랑경찰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맘도 까맣게 조리며
그보다 간절한 그대 생각에
달려들고 싶었지
불나방 되어 타죽는 한이 있어도
저 거리 단숨에 뛰어 건너고 싶었지
나는 수배자
그대 얼굴 한 번 볼 수 없어
깊어 가는 분단의 가을 밤
그대 갇혀 있는 중랑경찰서 근처에서
미친 바람처럼 어슬렁거렸지
밤새 울음으로 떠돌았지

병문이가 공식적인 시인으로 나서게 된 '양수리에서'라는 시집에 있는 한 시이다. 이 시는 공안당국의 대표적 반인권탄압 '연대사건'이 있었던 1996년에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했던 병문이가 그로 인해 한참 수배였던 시절, 그에게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애인이었던 숙희가 국가보안법상 금품지원 혐의로 구속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도 이 시를 수배 중에 읽으며 가슴이 무척 아팠다. 같은 수배자 처지인 병문이도 힘들텐데, 애인마저 구속되다니 이 땅에는 '법의 눈물'도 없구나라고 슬퍼했다.

그렇게 서로 아파했던 그들이 아름답게 결혼을 했다. 참으로 기뻤다.

1. 사랑 이야기

1992년 동국대 철학과 1학년에 다니던 병문이는 동국문학회 회원으로, 덕성여대 화학과 1학년에 다니던 숙희는 운지문학회 회원으로 '서울지역 대학생문학연

합' 출범식때 처음 만났다. 그 때부터 병문이는 숙희에게 관심이 있었다. 물론, 숙희는 병문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94년 수원 경기대에서 열린 겨울 창작학교 때였다. 숙희는 운지문학회 회장을 하며 답답한 일이 많아 그 날 여러 학교 동기들과 술을 먹으며 결국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옆에서 숙희를 짝사랑하며 좋아했던 남자친구도 취하고, 결국 술 못하는 병문이가 취한 숙희를 챙기게 되었다.

둘은 칠흙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운동장을 걸었다고 한다. 차갑고 쓸쓸한 겨울바람이 등뒤로 불어 왔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순간 함박눈이 내렸다고 한다. 숙희는 어느새 병문이의 어깨에 살포시 안겼다고 하다. 그것이 병문이의 심장에 불을 당긴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숙희는 이른바 '필름' 이 끊겼고, 병문이만이 기억이 또렷했다.

다음날 숙희는 참가한 회원들이 추운 강의실에서 자고 있을 때, 수위실 온돌방에서 혼자 잠을 깼다. 병문이의 따뜻한 배려였다. 조금 후 병문이가 오더니 "괜찮아?"라고 물었고, 병문에게 관심이 없는 숙희는 차갑게 대했다.

그 후부터 병문이는 맨날 전화를 했고, 편지를 5통씩 보내는 등 본격적인 '구애' 를 하였다. 남자들에게 인기 많던 숙희는 친구로 지내자며 계속 무심했다. 끈질기게 다가오는 병문이가 부담이 되었던지 한 달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숙희는 1995년 5월 5일 병문이 생일날에 걸려온 그의 전화를 받고 "확실히 끝내야지"라고 만나러 나갔다가 '병문 이벤트' 에 걸려 마음을 주고 말았다. 그것은 이러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만나 수원으로 갔다. 수원에서 출발하는, 지금은 사라진 서민들의 협궤열차를 타고 민중들의 삶내음을 맡으며 그들은 민중을 사랑하는 우리 시대 젊은이의 가슴으로 친해져갔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소래 포구의 위험한 다리를 건너며 숙희는 병문이에게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병문이는 숙희에게 바다와 함께 부지런한 어민들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을 살고 싶은 마음을 전했고, 숙희는 '기술' 이 아닌 '진실' 에 감동되어,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 만남을 계기로 숙희는 "내가 아는 병문이와는 참 다른 사람이구나. 참 괜찮은 애구나"라고 느끼며 딱딱한 사람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많은 시간과 사건이 엉켜진 9년의 연애를 건너 아름답게 남은 인생을 하나로 살기 위해 오늘 '부부' 가 된 것이다.

2. Bravo My Life

'Bravo My Life' 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노래이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묻는 나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

"…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Bravo my life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니가 가는 것이 길이다…"

나는 글을 쓰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며 웅얼거리고 있고, 요즈음 나의 18번으로 사용하려 한다.

병문이는 남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잡지 '민족21' 기자로 일하며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숙희는 잡지사에서 일하며 컴퓨터 그래픽 전문잡지의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근무처는 둘 다 을지로지만 서로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한다.

숙희는 병문이가 통일운동을 하고 있기에, 자신은 이에 조력하려 한다고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면 해요.

한꺼번에 쏟아붓기식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는 서로의 운동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숙희는 병문이에 대한 조력만이 아닌 덕성여대 졸업생들이 모여 만든 덕성여대 출신 양심수들을 돕는 후원회에 동참하여 면회도 다니고 한다. 숙희는 '자신은 이전 바빴던 학생운동시절과 비교해볼 때 이를 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속에서 조력만이 아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문이는 운동에 대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더욱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세상에 이익이 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힘들어요. 하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넘어 '진리의 길' 은 반드시 있다고 봐요. 이 길은 성자의 삶과도 같은 것이며, 따라서 자기희생이 따른다고 봐요.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방되어 있고 문턱은 없지만, 운동에 대한 결의나 참된 자세가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라며 어렵다고 한다. 일반인이 아닌 운동가로써의 솔직한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앞의 노래가사처럼 자신들을 더욱 성숙시키면서 용기를 갖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멋진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3. 새신랑 · 새댁

필자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끝내고 저녁을 먹고 오후 9시라는 약속시간보다 먼저 병문이가 혼자 있는 신혼집으로 먼저 왔다. 숙희는 회사 사람들과 산행에 갔다 회식을 하고 늦게 온다고 했었다.

병문이는 설거지도 하고, 냉장고 청소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간단하게 차린 저녁을 먹었다. 필자와 병문이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숙희가 왔다. 회식때 꽃게찜을 먹고 왔다고 한다.

숙희는 오자마자 결혼사진 봤냐고 했다. 안 봤다고 하자 즉시 보여주었다. 장면 장면에 비친 숙희는 예뻤고, 병문이는 늠름해 보였다.

"인생이 폈어요. 오랜 자취생활과 수배생활이 아닌, 아내도 있고, 방도 있고 하니 많이 안정감을 느껴요. 예전에는 불안정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는 강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감속에서 이제 뭔가를 책임감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결혼이 좋기는 좋은 가보다.

"눈을 뜨면 병문이가 입을 벌리고 자고 있어요. 나의 신랑이구나 하고 느껴져요. 저도 결혼하니 많이 안정감을 느껴요."

숙희는 병문이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하며 병문의 도시락도 싼다. 저녁에 병문의 도시락에 쌀 한 톨, 찬 하나 남아있지 않음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병문이는 매주 일요일 주변 초등학교로 가서 숙희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 노총각인 필자는 슬슬 질투가 나기 시작했다.

"가계부를 쓰는데 단순히 재정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을 성찰하게 되요. 서로 1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것을 놓고 평가하자는 데 남편이 잘 협조해주었으면 해요."

그럼! 완벽한 잉꼬부부가 있으랴! 하지만, 필자는 이미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항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미안하다고 했다. 소식지 편집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들은 이미 '후원회 소식' 에 큰 힘이 되었다. 시인 병문이의 '양심수에게 보내는 시' 도, 숙희의 간간한 글도 '후원회 소식' 을 아름답게 빛냈다.

병문이는 "내년쯤 시간이 되면 연재기획형식의 글을 '후원회 소식' 에 싣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고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숙희도 다음 호에 면회기를 쓰겠다고 한다. 참 좋았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후원회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인권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해요."라고 하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새벽에 인터뷰를 마치고, 간 크게(!) 신혼집에서 이 부부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아주 편하게 잠을 잤다.

공직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님!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그리고 소식지 감사히 받았습니다.

돈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달과는 상관없이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곳 수감생활을 감수하면서 공직사회를 확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은 우리 전국공무원노조가 지향하는 공직사회개혁의 두 축에 해당합니다.

이에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직사회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역사상 위로부터(권력 가진 자)의 개혁이 성공한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 이것은 사회개혁으로 연결되어 사회실현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서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씨앗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게 보내주신 관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2002.10.27

서울구치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차봉천 드림

●차봉천님은 전국공무원노조 결성으로 인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2002년 10월 8일에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199번으로 수감중이십니다.

빨리 땅도 마음도 하나가 되는 날이 왔으면…

보고싶은 민호 오빠에게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오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 나는 겨울감옥살이 많이 힘들지 않아요? 난 잘 모르겠어서…. 한번도 찾아보지 않은 이 못난 후배를 용서하세요.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겠지라고 믿어주는거죠? 혹시 그 믿음을 져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오빠! 감기에 걸려 아픈건 아닌지 걱정이야. 하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건강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 오빠가 구속되고 한동안 꿈에서 오빨 보았어요. 한번도 와보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오빠에게 작은 목소리로 변명만 늘어놓던 나의 모습. 또 한번은 오빠가 꿈에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미 나왔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몹시 미안했던…

잠을 깬 이후로 주욱 왠지모를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낸거 있죠. 미안해.

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2002 회원역사기행'을 다녀왔어요. 해마다 후원회에서 장기수선생님들,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으로 '우리 민족 통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다녀왔어요.

네 살부터 여든 살까지 모두 70여명이 함께 한 이번 역사기행 참 좋았습니다. 한반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철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 옛날부터의 다툼. 그리고, 민중이 일어서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눈과 머리와 가슴으로 보고 느끼고 새긴 참 의미있는 기행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반쪽 이북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태풍전망대에 들렀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그런데 진짜 가깝더군요. 전류가 흐르는 남방한계선을 지나 군사분계선이라 할 수 있는 맑은 임진강너머 이북땅이 바라다보이는데 철책도 콘크리트 장벽도 땅속의 지뢰도 다 제거하고 서로가 마음놓고 오갈 수 있는 그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 곳에 근무하는 장병의 이야기로는 요즘처럼 춥지 않은 날에는 농사일을 하는 이북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보았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아주 가까이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빨리 땅도 마음도 하나가 되는 날이 왔으면…

오빠! 힘내자 우리! 그리고, 보고 싶어요..

불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서가 아니라, 요즘처럼 차가운 바람부는 날 오빠가 갖은 구박을 하더라도 꿋꿋하게, 머리 한 대 쥐어박아도 씨익 웃으면서 오빠 팔짱 끼고 데이트하고 싶다. 같이 영화도 보고 싶고… 어느 날 새벽 혼자 즐겼다던 눈처럼 날리던 벚꽃 구경도 같이 하고 싶고… 빨리 나와. 미안해. 애같은 소리만 해서… 오빠한테 투정도 부리고 싶고 고민도 얘기하고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오빠가 없어서 정말 싫어.

나한테 편지 좀 해라. 답장도 안 보내고 정말 나빠!!! 암튼 아프지 말고…

2002. 10. 28일에 광희가.

추신 : 오빠 생일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 정말 속상하다. ㅠ.ㅠ

● 고광희님은 한총련 양심수 윤민호님의 대학교후배로서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중을 위해 헌신한 그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이문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차가운 겨울이 벌써 왔다. 아직도 옥안에서 추위 그리고, 외로움과 싸우고 계실 수많은 양심수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서 면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 3년이란 세월을 꼬박꼬박 두 달짜리 남편의 면회를 다닐 때마다 대구로 오가는 기차 안에서 그렇지 않아도 텅빈 가슴에 쓸쓸함이 더했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남편이 아닌 다른 동지들을 찾아다니는 면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새벽 4시 30분 성남. 옥안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이제까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인연을 맺었다. 이른바 '민혁당 가족대책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감옥에 보냈다는 이유로 인연을 맺은 우리는 아마 전생에도 가족이었거나 아니면 심각한 악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10월에 찾아온 때 이른 첫 추위. 새벽바람이 살 속을 파고든다.

이번엔 대전과 전주, 광주에 계시는 형제들을 면회하기로 했다. 모두(꼬맹이 지원이도 잠이 든 채로 따라나섰다)가 밤잠을 꼬박 설치고 짧지만 긴 여정에 들어갔다. 우리 일정의 시작은 일요일 상행선의 지체를 예견하여 광주부터다. 승합차가 출발한다. 밤잠을 설쳐서 대부분 수면에 돌입했지만 운전하는 이정태 형(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과 보조석의 한용진 형은 봇물터지듯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쁘다. 새벽 고속도로. 바깥 추위에 창문을 꼭꼭 닫아 맸지만 시원하다. 별탈없이 광주에 도착했고 전날 미리 도착한 부산의 이의엽 형과 교도소 앞에서 반가운 상봉을 했다. 우리 모두가 모처럼 만나고 함께 나설 때도 즐거웠지만 한꺼번에 면회하게된 것은 더욱 기쁜 일이었다. 그것도 일요일 꼭두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다 광주교도소 측의 야만적인 처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진수 형. 늘 신중하고 기개있지만 형을 두고 나서는 내 마음이 무겁다. 오늘의 대가족 면회가 형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전주로 떠난다. 하루에 세 곳의 면회를 모두 하려면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다. 차에 오르자마자 전주로 달린다. 밤새워 오느라 아침을 모두 굶었지만 밥먹을 시간도 없다. 오늘은 먹는 것보다 면회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딜 가나 어머니같이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 이경진 언니가 우리에겐 그런 분이다. 가방 한가득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담겨 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린 면회도 못하고 굶주려 죽었을 것이다.

전주의 임태열 형은 언제나 밝은 얼굴이다. 그리고 늘 낙천적이다. 그래서 형을 바라 보노라면 시련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원이가 우리 아빠라며 앞자리를 독차지해도, 모두가 들어선 면회실이 비좁아 터질 것 같아도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 얼굴을 홀린 듯 바라보고 있는 박윤희 언니(임태열 형 아내)가 내 눈에 들어온다. 누가 마누라 아니랄까봐…

두 곳의 면회를 마쳤는데도 시간이 빠듯하다. 또 다시 달려야한다. 물론 이제 점심까지 빚을 졌다. 참, 전주의 김대원 씨 소식에 마음이 안타깝다. 그나마 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가족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위안을 삼는다.

대전의 하영옥 형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식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들어서는 모습에 상기된 표정이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울까… 저렇듯 사려깊고 선량한 사람에게 8년형이라니… 누군가 신은 인간이 감당

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반대다. 신은 가혹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가혹함에 맞서 싸우고 싶다. 운동의 현실과 나라의 앞날에 대한 사색을 전하는 형의 모습에서 오히려 내가 용기를 얻는다. 시간이 너무 짧다. 아쉽게 돌아서려는데 김소중 언니(하영옥 형 아내)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 부부가 잠시라도 함께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면회는 끝이 났다. 서두르고 서둘러서 광주, 전주, 대전 옥안의 형제들을 다 만날 수 있었다. 마음이 복잡하다. 보고팠던 얼굴들을 모두 만난 뿌듯함이 한 편의 마음이라면 그들을 두고 돌아서야하는 안타까움이 다른 한 편의 마음을 채운다. 다른 곳의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은 또 어찌하랴... 서울로 돌아오는 기나긴 차량의 행렬 속에서 아무래도 나에게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조국과 민중을 위해 헌신한 그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다음 달 면회는 부산, 안동, 서울이라는 박종석 형의 목소리가 가슴에 새겨진다.

알립니다

11월 산행

오랜만에 산행을 갑니다. 많은 행사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을 찾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여유있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언제: 2002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어디서: 도봉산
만나는 곳: 우이동 그린파크앞
갖출 것: 도시락, 회비 3,000원
오는 편: 버스 28번, 23번, 6번, 6-1번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강좌가
송년을 맞이합니다.
많이 오셔서
송년 역사공부를 해봅시다.

일 시
12월 8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세요!)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반인권 · 반통일 ·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에 항의하고자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에 매주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매주 토 오후 4시~5시(1시간)
장 소
탑골공원

우리민족 통일을 염원하며…

김미성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광주전남지역양심수후원회 회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지하철역으로 향하였다. 노량진역. 노량진역, 머릿속에 되뇌이며 열심히 가다 혹 다시한번 모임장소를 확인할 겸 후원회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량진 어디로 가면돼??", "노량진? 노원역이야~~, 왜 노량진으로 갔어??" "꽈당" 내가 서울에 올라온 진 몇 년이 되었지만 서울지리를 잘 모르는 터라 노량진으로 혼자서 갔으면 아마 역사기행의 참 맛을 알지 못할 뻔하였다

어려움 끝에 드디어 후원회 깃발과 식구들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다. 두 대의 버스로 우리들은 나누어 선생님들, 처음 보는 회원님들, 아이들과 뒤섞여 마침내 떠났다.

처음엔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지만 차가 떠나면서 아이들 마냥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기행의 첫 장소인 양주 회암사터에 도착했는데 발굴시점이 얼마 안되어서인지 지금도 진행중이었다. 그 터는 내가 한눈으로 보아도 꽤 넓어보였는데, 실터가 1만평에 이른다 하였다. 고려말에서 조선중기에 걸쳐 왔던 사찰로 인도의 승려인 지공대사와 그 제자인 나옹에 의해 국찰규모의 대사찰로 중창되어졌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관계속에서 번창하였고 사찰에 궁궐을 두어 그곳에서 태조 이성계가 기거하여 사찰과 궁궐이 함께하는 사찰이라 하였다. 후에 문정왕후의 죽음으로 불교탄압에 이겨내지 못하고 사찰은 불에 타 없어지고 몇백년의 세월의 흐름속에 땅속깊이 사라졌다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회암사터를 보고있자니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머릿속엔 온통 회암사의 옛 모습이 그려져 웅장함을 더해내었다.

회암사지터 뒷산에 올라 나옹, 지공, 무학대사의 사리가 모셔져있는 부도에 다다랐을땐 해가 이미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지공과 무학대사의 부도비와 부도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따라온 아이 중 한명이 "엄마 사리가 뭐야? 라면사리?" 하여 한바탕 웃음을 선사해주었다. 나옹의 부도는 산 위로 더올라가야 했는데 밤도 깊어지고 하여 그냥 설명으로만 끝내어 아쉬었다. 그 중 무학대사의 부도는 조선시대에 제일 화려했다고 한다. 밤이 어스름 밀려와 그 화려함은 덜했지만 그 크기만봐도 무학대사의 부도는 화려해 보였다.

삼부연폭포에 도착했을땐 폭포소리가 시원스럽게 들렸다.

조선전기 화가들은 중국의 산수화의 영향으로 관념산수화가 주를 이뤘는데 조선후기 겸재 정선은 금강산 길목에 있는 삼부연 폭포를 지나며 종이에 그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한다. 이때부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출현하였다고 한다.

저녁 식사는 후원회 간사인 창희 선배님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두부집이었다. 손으로 직접 만든 두부인지 너무나 고소하여 게눈감추듯 사라졌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푼 뒤 교수님의 역사강좌와 역사기행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역사강좌는 미륵신앙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꿈

꾸는 가난하고 불만있는 농민들의 민심을 얻어 지금의 철원일대를 장악하여 활동했고 미륵불을 자처하다 왕건에게 쫓겨난 궁예, 후백제를 세우고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대파하고 후삼국통일을 꿈꾸었으나 왕건에게 해상권을 빼앗기면서 몰락한 견훤, 궁예와 견훤이 이루지못한 후삼국의 통일을 농민의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대민정책으로써 백성들에 대해 경제안정정책을 펼쳐 후삼국통일에 성공했던 왕건이 활약했던,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갇혀 가볼 수는 없는 곳이지만 그 곳에 궁예의 궁궐터와 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은 궁예의 궁터를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 놓은 철조망을 치게 한 놈들이 원망스러웠다.

뒤풀이 시간을 가지며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였는데 장기수선생님들 가운데는 북녘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으셨다.

철원하면 북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어서 선생님들은 더더욱 고향산천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운 뒤풀이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선생님들과 몇 몇 회원 분들은 잠을 청하였고 활기왕성(?)한 회원들만 남아 2차 뒤풀이를 가졌다. 2차 뒤풀이 시간은 그동안 회원들의 숨겨진 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신입회원인 나로서는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또 하나 광주에서 올라오신 류락진 선생님과 역사강좌만 하시는 줄 알았던 한상권 교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전날의 늦은 뒤풀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새벽에 일어나 고석정 산책을 나섰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고석정까지 가는 시간은 무척이나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 주었다. 고석정은 한탕강 한복판에 치솟은 기암이 우뚝서있는데 임꺽정의 활동은거지로 알려져있고 임꺽정이 관군에 잡혀 죽지 않고 꺽지라는 물고기로 변해 깊은 강물로 숨어버렸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석정 강물아래에서 위를 바라다 보았을 땐 우뚝서있는 바위가 쏟아져 내려앉는 느낌이 들며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다. 고석정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장님께서 넓게 펼쳐져 있는 논들을 바라보시며 철원 땅에 이렇게 넓은 평지가 자리하고 있다하시면서 저쪽 산너머로는 더욱더 넓게 분포되어있다고 하면서 철원땅을 칭송하셨다.

산책을 마치고 먹는 아침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도피안사에 도착하였을땐 바람이 꽤 세차게 부는편이었다. 도피안사의 특징은 철조비로자나좌불상과 대적광전앞에 있는 삼층석탑을 꼽을 수 있다. 다른 불상과는 다르게 철로 만들어졌다. 철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 진주가루를 섞어 철불을 만들었다한다. 후세에 진주가루를 섞어 철불을 만들어진 것을 모르고 철불이 녹슬지 않게 하기위해 금으로 입혀져 철불의 제 모습을 찾아볼수 없었다.

도피안사를 뒤로 우리들은 차안에서 복습과 함께 통일노래로 노동당사 가는 길을 재촉하였다. 노동당사

는 8.15 해방후 북의 노동당 철원군당사로 쓰였던 곳으로 철근 없이 모두 벽돌로만 쌓아 올려져 있는 건물로 6.25전쟁 폭격에도 그 형태가 남아있었다. 폭격맞은 곳, 총탄이 박힌곳 그야말로 참혹한 그때를 연상케

하였다.

노동당사 안으로 들어가 그때를 더 실감나게 느껴보고 싶었지만 붕괴위험과 보존 하기위해 안으로 못들어가게 막아놓았다. 선생님들께서 청춘시절을 떠올리는 듯 노동당사를 빙 둘러 보시는 모습은 가슴 뭉클하였다.

노동당사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백마고지가 있었다. 백마고지는 6·25전쟁 당시 고지의 주인이 24회나 바뀔정도로 혈전을 벌였던 곳이라 한다.

백마고지를 서로 사수하려는 까닭은 이러했다. 북은 산간지역으로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였으며 북에서 제일 가까운 철의 삼각지라 불리는 철원의 넓은 평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곳에서 격렬한 혈전을 치러내야만 했다고 한다.

경원선의 중단점인 신탄리 역은 아쉽게도 차안에서 바라본채 평양과 140km 떨어진 태풍전망대에 도착하였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은 육안으로도 한눈에 알아볼수 있을만큼 가까이 있었다.

대학시절 과에서 놀러왔을 때 이 곳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북에서는 북에 넘어오라는 방송을 하지 않는 것과 문구들이 사라졌고 이남은 아직도 선전 방송을 북에 보내고 있는 것이며, 달라지지 않은 것은 그때 보았던 임진강은 지금도 푸르름과 함께 고요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북을 바라보시는 선생님들 마음속엔 오십년이 넘게 임진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는 듯 하였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북쪽땅이 여기가 끝이라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양주군에 위치한 숭의전에서 점심을 먹고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에 들러 박물관을 둘러보고 적성 향교와 칠중성을 둘러보는데 밤이 어스름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지난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중학생 미선이와 효순이의 사망장소인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 언덕길이었다.

캄캄해진 길위로 회원들과 함께 가는 길은 엄숙함을 더했고, 아이들도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하는지 묵묵히 우리들을 따라나서는 것이 대견스러워 보였다.

가는 길은 장갑차의 행렬이 얼마나 많이 자나갔는지 짐작할 만큼 도로가 울퉁불퉁 패어있었다. 도로조차 패이는데 미선이와 효순이는 얼마나 아팠을까 아직 못다 핀 청춘을 장갑차에 깔려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던 미선이와 효순이...

죽음장소엔 미군에서 세운 비가 있었다.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비였는데 이 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난감하였다.

그 비 하나 세워놓고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진심 어린 사죄인지 헷갈렸다.

미선이와 효순이를 비롯한 미국에 의해 죽어간 사람들을 위하고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다.

내가 회원으로서 처음 갖는 선생님들과 양심수 후원회 회원이 한데 어우러 조국통일을 염원한 뜻 깊은 기행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

왕준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몇번 가봤지만 늘상 닫혀 있는 대문,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열려있는 때가 있다. 그 날은 바로 한상권 교수님 역사 강좌가 있는 날이다. 바로 오늘.

저번 달에 처음으로 참여한 역사강좌에서 "미군정과 단독정부 수립"에 관해 강의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다. 특히 끝에 김구선생에 대한 세속의 명성부터 그 명성에 대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는 나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난 11월의 역사강좌에 절대 빠질 수가 없었다.

사실 그 전날 동아리 총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전주에 가서 밤을 샜지만 눈을 부릅뜨고 서울로 향했다. 역시 나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많은 회원분들께서 와 계셨다. 우린 재경이 오빠가 가져온 맛난 찹쌀떡과 재현 언니가 가져온 귤로 배를 채우고 한상권 교수님을 기다렸다. 10여분 늦게 도착하신 교수님을 우린 팡파레로 맞이했고, 늦게 오셔서 팡파레를 울렸다는 우리의 말에 교수님은 그럼 계속 늦어야겠다며 맞장구를 치셨다.

오늘의 주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

194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고 미국은 신탁통치를 주장했지만 미 합동 통신사에 의해 소련과 미국의 입장을 정 반대로 보도함으로써, 특히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중 5년간의 탁치만을 부각시킨 왜곡보도가 국내에 전해짐으로써 "독립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독립을 유보시키는 조치"로 해석을 유도해서 대중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반탁은 애국이며, 찬탁은 매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반탁을 주장하는 김구의 임정세력과 한민당과 이승만 등은 애국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반탁을 하는 좌익인 조선공산당은 매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들의 대립은 첨예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우파 세력의 반탁운동을 하는 진짜 이유는 반탁의 민족주의적 측면보다는 반공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의식적으로 이용하여 민중적 기반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찬탁을 소련의 지령을 받아 돌변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매국노·사대주의자로 몰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의 주안점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독립국가 건설이었지만, 미국 측의 탁치안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내 정치 세력의 분열을 유도하고 단독정부 수립으로 연결되는 민족 분단의 국내적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친일분자 및 우익세력에게 도덕적인 명분을 부여하는 전기도 되었다.

이런 상황을 거쳐 한국문제는 미소공동 위원회의 1차, 2차 결렬로 1947년 9월에 유엔으로 이관되고 동시에 반탁운동 또한 막을 내리고, 남한은 단독 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결국 남한은 신탁 통치가 아닌 일국의 영구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처음 썼을 때의 즐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지금의 분단 현실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특히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울해진다. 역사강좌는 그 시절을 겪으신 변숙현선생님의 말씀과 권오헌 선생님의 회상을 끝으로 다음 역사강좌에 대한 일정조정 및 종강 파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비판

2002. 1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현재 경제특구법안 반대투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모든 조직의 임원 총파업을 결의하였으며, 그러한 투쟁에도 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양대노총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물론,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3권보장 및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여론화 되어있는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후원회소식에서는 특집으로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으로 바꾸고, 법안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전격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11월 7~8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3년 7월부터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어 우리나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글은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다.

1.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기본성격: 식민법률, 위헌법률, 노예법률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이 '뒷받침'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식민법률' 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헙법률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한 경쟁' 을 강요하는 '노예법률' 이다.

2. 적용기업: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 가능

-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 을 가리킨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은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가리킨다.

- 또한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미 국내 주요기업 주식의 상당지분을 외국인이 지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 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된다. 설상 국내인이 100%지분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극소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손쉽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에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다.

3. 지정 절차와 적용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가능

-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4조). 이제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 애초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기준으로 국제공항, 국제항만,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을 명시하였다. 사실 이러한 기준만으로 전국의 주요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조항이었다.

- 그런데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종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조항마저 대부분 삭제되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통과법안을 보면 국제자유구역 지정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교통, 통신, 용수, 전력' 이다. 이것은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갖추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

- 국회의원들은 일부 지역만 지정되면 지역적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러할 때는 '형평성' 이 아니라 '특혜성' 이 적합한 용어이다. 일부지역에 지원되던 특혜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4.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도 논의 막판에 포함시켰다.

1) 월차휴가 폐지, 주휴 · 생리휴가 무급화

-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57조)를 폐지하고, 주휴(54조)와 생리휴가(71)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무급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심지어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얼마 안되는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2) 파견제 확대 허용

- 법안(18조2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5조, 6조)가 정한 26개 파견대상업종을 전문업종에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문직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특히 전문직종이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파견근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미 관행화되고 있는 파견업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3) 단체행동권 제약

- 법안(20조)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조정법안의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꼬투리를 삼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사전조치이다. 또한 '산업평화'의 언급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 법안(18조2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령자의무고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무고용 면제도 고령자의 일자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5.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1) 교육시장화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이다. 또한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이다.

2) 의료시장화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6.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1) 노동기본권 부정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 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다.

2) 평등권 침해

-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7. 국토와 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12조)는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수도법, 도시개발법, 골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 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 나아가 법안(16조2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준다.

8.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다.

9. 21세기 동북아중심국가와 무관한 경제자유구역법안

- 법안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는 무관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법안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을 언급한다. 그러나 21세기 산업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이지 6,70년대 산업화을 이끌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아니다. 새로운 경제구심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비용을 삭감하고, 환경부담금을 절감해주는 '밑으로 향한 특혜' 가 아니라 반도체, 지적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육성정책에 있다.

- 또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진출은 적합한 국제적 노동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업체제에서 필요한 것은 '아래로 향한' 정책이 아니라 '위로 향한' 정책, 즉 지식정보인프라와 인적 기반을 확대강화하는 적극적 인프라구축정책이다.

이제 다시 70년대로 돌아가 '수출자유무역지역' 을 만들자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중단하라.

10. 결론: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식민법률, 위헌법률, 노예법률이다. 이미 노동, 환경, 교육, 의료,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건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묵살하는 반민중적 작태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자유구역법안 입법기도는 민중에 대한 중대한 선전포고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공존을 최우선에 놓는 해결책 모색

요즈음 북의 핵개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미국은 공공연히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일방적 파기를 운운하며 구체적으로 '북에 대한 중유지원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 · 일정상회담, 아시안게임의 북 응원단 참가 등으로 좋아지는 한반도 통일기류가 다시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세의 개입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좌절을겪을 수 없기에, 현재 제기되는 북의 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진정 '우리 민족' 스스스의 자각과 화해 및 대단결에 의한 통일노력으로 주변국가의동의를 이끌어 내야겠습니다. 〈편집자 주〉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고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 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온갖 설만 분분하다.

미국정부는 막연한 주장만 하지 어느 지역인지 또 고농축 우라늄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않)하고 있다. CNN이 보도한 켈리가 강석주 외무부상을 몰아붙이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래,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이는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북한이 시인했다는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 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 이다. 천연 우라늄이 풍부한 북한으로서 전력용 발전을 위한 핵계획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우라늄 시설 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 핵 프로그램은 핵무기개발 증거나 반핵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북한 죽이기에 위협받으면서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이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군사공격을 미연에 차단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제까지 의존해 왔던 일종의 생존술이었다.

북한은 최근 신의주 특구와 같은 개혁과 개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북일정상회담이나 철의 실크로드 등을 통해서 동북아5개국에 상호협력체를 출범시킴으로 장 · 단기적 생존권을 확보하는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매듭을 지어야 이 구도가 완결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를 위해 모호한 방식으로 의혹거리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을 협상으로 유도해 마지막 담판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몸부림을 선의로 받아 주기보다는 비공개리에 한국 및 일본과 깊이 논의하기로 한 이 문제를 느닷없이 언론에 흘려 제네바합의 파기설까지 나오도록 했다.

그야말로 역이용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지배' 에서 벗어나려는 동북아의 독자적 행보를 파탄시켜 계속적으로 미국의 손아귀에 묶어 두려는 고도의 악의적 술책이다.

동북아협력체 구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치르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가 통하지 않으면 전쟁에 의존하겠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실제 월드컵의 붉은 악마에 온 한국이 취해 있는 이번 여름 미국은 한국정부에도 비밀에 붙인 채 대북한 기습 선제공격을 입안하고 있었다. 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핵태세비밀보고서와 부시독트린에서 대북한 핵 선제공격을 명시화하면서 이라크 다음에 북한침공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에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무성 보장문서를 북한에 주기로 한 제네바합의 위배다. 실제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경수로발전소 2003년 완공, 외교관계 수립, 미국무성 보장문서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단지 중유 50만 톤만 이행했을 따름이다. 반면 북한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막무가내식 제네바합의 위배와 전쟁위협이 동북아협력체의 서막을 가져왔고 다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부시의 '평화적 무장해제'와 같은 사탕발림에도 불구하고 전쟁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94년 전쟁위기의 재판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이비 한국인이 판치는 우리 주류 언론과 정치계의 전쟁부추기식 대응과 대선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온다. 핵심은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공존을 최우선에 놓는 냉정한 해결책을 우리 모두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 위 글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감사이시자,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이신 강정구 교수님의 〈동대신문 1352호〉에 게재된 글을 퍼온 것입니다.

알립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2년 회원송년모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어느덧 해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힘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모임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2002년 회원송년모임'을 가짐으로 시간을 의미있게 쓰고자 하는 서로의 소중한 힘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일들을 돌아보고, 국가보안법폐지 · 양심수석방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재다짐하며 다가오는 중요한 시간들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언 제 : 2002년 12월 15일(일요일) 낮 12시
* 어디서 : 광화문 새서울주물럭 (세종문화회관 뒤)
* 문 의 : 02) 888-4470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숭실대 배규선 교수님께서 후원금 2,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1,000,000원은 북녘동포돕기에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혁당' 사건으로 20년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신광현 선생님께서 용돈을 모아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찍부터 양심수후원회를 지지 · 지원하셨던 유인하 목사님께서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통일 여성! 통일 조국!

저는 오늘따라 유난히 남북 단일기의 색깔을 그대로 닮은 광안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이 곳은 불과 열흘 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남북의 마라톤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 지나던 곳입니다. 북녘의 함봉실 선수와 남녘의 이봉주 선수. 이들은 하루 간격으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어 우리 민족의 힘과 끈기를 세계 만방에 떨쳤던 자랑스러운 딸, 아들이었습니다. 고난의 반세기를 지나면서도 꿋꿋이 이기고 지혜롭게 자라준 그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워 아직도 목이 메입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의 여러 벅찬 감격을 고스란히 안고, 저는 지난 15~17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의 심정은 한마디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과 북의 조국 산천이 어쩌면 이다지도 똑같은가 하는 것 때문에 현실감은 더욱 흐려졌습니다. 이렇게나 똑같은 자연, 똑같은 사람을 반세기가 넘도록 철저히 갈라놓은 외세와 반통일 분자들의 잔인함에 새삼 치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어머님들
우리들의 맑은 눈동자 우에
하얀 연이 날으던 저 푸른 하늘가에
한 점의 검은 구름이라도 비끼지 못하게
6·15 공동선언을 끝까지 지켜 주세요.
통일된 조국을 우리에게 물려 주세요.

위의 글은 대회 폐막식에서 북녘의 어린이들이 낭송한 합창시입니다. 이 간단한 몇 줄의 시야말로 이번 대회의 의의와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존재이기에 본능적으로 평화를 사랑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과 전쟁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단호히 맞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어머니, 우리 여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저 간곡한 바램이 왜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는지,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왜 우리 손안에서 고이 날려보냈는지는 이로써 자명해집니다. 아직도 저의 손바닥엔 여리게 꼬물거리던 비둘기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해서 가슴이 찡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디 이번의 뜻깊은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 날까지 지속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금강산의 절경과 천진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한다면 우리 어찌 다시 만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우리 남북 여성들의 빛나는 우수성을 뚜렷이 확인한 바 어찌 통일의 그 날이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낙천적 믿음과 희망으로 굳게 단결한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박 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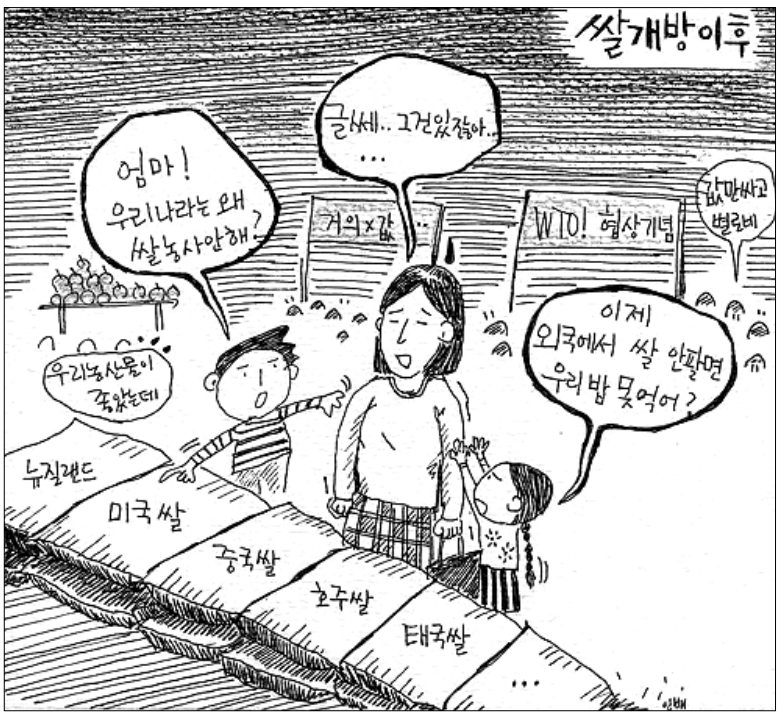
● 박수분 선생님은 부산에 사시며 최상원 선생님과 함께 부부 장기수 선생님으로서 오늘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아빠~농부아저씨들 열받았대

WTO 쌀 수입개방 반대! 미국반대! 큰 물결타고 가자! 농민대항쟁으로

〈아빠~농부아저씨들 열받았대〉

농민 형님, 형수님이 30만 넘게 오신다면 우리 농업, 우리 쌀, 우리 과일 다 지킬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30만 농민 대항쟁! 농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요



〈엄마, 우리나라는 왜 쌀농사 안해?〉

쌀이 완전 개방되면서 수입 농산물에 의한 농촌의 몰락은 식량 안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쌀은 생명이고 식량은 주권이고, 개방압력에 대항하는 농민대항쟁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글 · 그림/박인배 기자, 제공/김도균 민중의 소리 기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박인배님은 민중의 소리와 고려대 인터넷방송 KUNET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권CONCERT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열네번째

보랏빛 수건

그래서 우리는 또 모였다.
노래는 울려퍼지고 우리는 발을 구른다.
겨울은 춥고, 감방은 더욱 춥고,
법제는 완강하고, 시절은 곤고하고,
우리는 뜨겁다. **- 김훈**

해마다 겨울이면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양심수와
여전히 묶여있는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올해 열네번째를 맞는 세계최장기 인권콘서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머니들의 "보랏빛 수건" 행렬처럼 고난을 딛고
우리는 희망을 찾아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미처 눈길 받지 못한 것들이 주인공 되는 밤!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묻고 수많은 인권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뜨거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 시▶2002년 12월 14일(토) 오후6시

장 소▶장충체육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문 의▶민가협(☎ 763-2606)

故신인영 선생의 어머님 고봉희 여사 별세

비전향장기수 故 신인영선생님의 어머님이신 고봉희 할머님께서 지난 11월 8일 꿈에도 잊지 못했었던 아드님을 끝내 보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故 신인영 선생님께서는 골수암 진단을 받고 1999년 3월 13일 32년 옥고 끝에 석방되어 2002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로서 북녘으로 송환되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인영 선생님께서는 2002년 1월 7일, 슬프게도 끝내 어머님을 뫼시지 못한 채 평양에서 운명하였습니다.

고봉희 할머님께서는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모르신 채 언제 아드님을 다시 만나게 될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전북 부안장지에서

신인영 선생님과 함께하신 생전의 고봉희할머님.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의 그 꿈은 깨졌습니다.

어쩌다가 아드님의 운명소식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할머님께서는 지난 9월말 방안에서 낙상하여 앓으시다가 그 후유증과 노환으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등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참가단체들은 애도의 부고광고를 냈고,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통일광장 선생님들을 비롯, 사회단체 성원들은 11월 10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발인제에 이어 권낙기 선생의 진행으로 권오헌, 임방규 선생님의 조사, 이북에 계신 9.2 송환비전향장기수 일동이 보내 온 조사와 이북의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에서 보내 온 조사를 낭독하는 추도식을 가졌고, 전북 부안군 장지에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달려온 통일광장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는 추도식을 권오헌의 사회로 최상원, 류락진 선생님의 조사, 추모노래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일이있었어요
2002년 10월

01 한총련 소속 대학생 10명이 세종로 미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미국기)를 불태우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끝내 전원 연행당함. 학생들은 부시사과, 재판관할권 이양, 소파개정, 미군철수등 구호를 외치며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을 규탄했음 - 급하게 소식듣고 밤 9시 종로경찰서에 가서 학생들 면회하고 격려함. 한편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학생들이 여중생 살인만행규탄 플랭카드를 내걸고 시위하다 연행됨(홍근수, 권오헌, 박기하 함께 면회함)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5공초에 발간된 "5공전사"를 입수, 삼청교육피해자수를 파악했다며 1980.7월 국보위가 '삼청교육5호'에 의해 불법연행자는 6만명이고 이중 30,900여명이 군부대에 분산 수용돼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50여명이 구타등으로 사망했다고 발표

02 종묘공원에서 '여중생 살인미군처벌, 부시사과, 미군철수, 미국의 전쟁반대 전국대학생총궐기대회"를 한총련, 기독학생연맹등 전국대학생총궐기준비위원회 주최로 5000여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림. 한총련 10기의장 직무대행 윤경회대변인의 결의발언등 대회를 마치고 종로-을지로-명동까지 행진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

03 故신인영선생님 어머님이신 고봉희할머님을 중곡동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3일전에 방안에서 넘어지시어 오른쪽 엉덩이뼈근처 통증이 심해서 거동을 잘 못하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식사도 잘 하시지 않아 초췌한 모습이셨습니다. 사위되시는 분이 간병을 하시는데 4일날 병원에 모시고 가신다 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으시기 빕니다. 양계숙, 권오헌 다녀왔습니다.

- 종로경찰서는 미대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10명 학생 가운데 정성일(고려대졸)씨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음. 그 밖에 윤경록(경원대)학생등 2명은 한총련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이어서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고 함

04 명동 미군장갑차 여중생 대책위 회의실에서 대책위대표, 집행간부 연석회의 열다. 미군의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미군측이 오히려 강제연행, 구타, 자술강요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해옴에 따라 청량리 경찰서는 3일 조선대생 연행, 단국대학생들과 자통협 간부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대응방침 논의

-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차봉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구속영장 신청
- 이창희, 고광희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청 정대일 사무처장을 면회함.

05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집행부주례모임 갖다 - 미대사관 진입 대학생 구속대책, 한총련 합법화 대토론회, 한청-국보연대 토론회 개최문제, 후원회소식 132호 발행준비, 9월결산, 회비문제등 협의 - 송창학, 이창희, 고광희, 권오헌

-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청탄압규탄 토요캠페인〉을 탑골공원앞에서 벌이다 - 마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격려방문. 김현희, 송창학, 이승미, 변의숙, 김민정, 이일규, 김미성, 박지윤, 신입회원 이재황, 권오헌, 이창희, 고광희 함께 함
-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감독이 부친상(김정하, 79세)을 당했습니다. 후원회 회원이기도 한 김감독님은 비전향장기수 석방과 송환운동에 영상작업을 통해 헌신했었습니다. 5일 오후 2시 40분 운명, 일산병원 장례예식장에 빈소를 마련했으며 7일 11시 발인하여 백제화장장을 거쳐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이정규, 이창희, 이정태, 김호현, 한상권, 권오헌 등이 문상다녀왔습니다.

06 반외세 민족자주와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다 남민전 사건으로 사법처형당한 故신향식선생 20주기를 맞아 광주공원묘역 고인의 묘소에서 '故 만성 신향식선생 20주기 추도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족들과 사건관련자, 유가협, 경복고등학교 동문들, 사회단체대표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옴시롱감시롱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종린, 박정기, 오종렬, 임동규선생등 사회단체 대표의 추모말씀이 있었고 고인의 집행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울분으로 지은 故 김남주시인의 추모시 '전사2'가 낭독되었으며 이 모임에 처음 온 같은 사건의 홍세화 선생이 사건관계자를 대표하여 분향재배하기도 했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부장판사)

는 2001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에 항의, 훈련중인 미2사단의 궤도차량 행렬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어 구속기소되었던 김지은학생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다

-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총련위장탈퇴, 이적표현물제작등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김성희 2001년 경북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구속
- 오후 2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팀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의 역사강좌 8강 '미국이란 무엇인가 2' 주제로 진행됨.시사모임에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송창학, 신현익, 신현부, 고광희, 이진, 왕준영, 이용준, 변의숙, 김민정, 박지윤, 김현희, 이강우, 조상희, 임미영, 이승미, 김호, 이창희, 이일규, 김재현, 송세영선생님, 문상봉선생님, 변숙현선생님, 김수룡선생님, 권주한선생님, 안학섭선생님, 이지연 사모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07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주최로 '세계평화 위협하는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전쟁기도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 명동 '한 · 하늘 · 땅' 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 열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등 대표들 함께. 분담금 월2만원씩 회계과부족분 정리문제, 적십자총재 면담등 논의
-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청이적단체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한청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준) 주최로 열림. 여는말(오종렬), 기소내용 규탄발언(권오헌, 임기란), 기자회견문 낭독(홍근수)등 순서로 진행 - 마치고 구속자가족(전상봉의장 부인 강병식외)들과 이상규 비상대책위 위원장, 권오헌대표등 민주당사로 이종걸 인권위원장 면담, 한청간부구속에 민주당에서 성명서 내줄 것등 요구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보건의료노조산하 강남성모병원 상황실장 이숙희님을 고광희간사가 면회함

08 경찰청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의 서경원 전의원 폭행사건 편파왜곡수사 및 여중생 범국민대책위 탄압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열다. 취지(이관복), 규탄발언(임기란), 기자회견문낭독(권오헌)등으로 진행 - 마치고 임기란, 변연식, 권오헌 대표와 집행부 일꾼들 경찰청 외사과장(김재덕총경) 만나 왜곡수사, 탄압사례 등 들어 항의하고 미군당국의 여중생 살인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속셈을 일깨우며 폭행미군 철저수사와 조선대생 구속을 항의하고 즉각 석방 촉구

- 민주당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청탄압 비상대책위원회 이상규 위원장과 전상봉의장 부인 강병식씨, 정대일사무처장 부인 신진영씨와 임기란, 권오헌등 민가협대표 공동으로 한청이적단체 기소규탄과 구속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종걸의원 인사말,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석방촉구발언, 강병식씨 석방요구발언, 권오헌 기자회견문 낭독등으로 이어졌음
- 미대사관 앞에서 반전 · 평화 · 시민 ·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10.8 반전 · 평화 국제행동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침공 1년을 기억하며 이라크공격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다. 함께 한 사람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미대사관에 전달 - 이어 인사동까지 평화행진 - 인사동 무대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문화적 내용의 퍼포먼스와 단체별 규탄연설이 있었음.
- 송창학 간사의 주재로 기획모임이 인사동에서 열림. 이승미, 노혁, 변의숙, 이득형 회원 등이 참석함. 기간 기획모임을 점검하고 앞으로 각 소모임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기획모임을 내실있게 전개하기로 함.

09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촉구 2차결의대회 열다.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대표의 인사말, 이은경사무처장의 경과보고, 허영춘, 임기란, 전교조부위원장, 권오헌대표의 개정촉구연설이 있었음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들은 대한적십자사로 서영훈총재를 면담하면서 비전향장기수 32명 2차송환희망자 조건없는 송환과 1차송환때 함께 갈 수 없었던 가족들 재결합등 인도주의 문제에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하다. 서

영훈 총재는 금강산 남북적십자 대표회담에서 북측이 2차송환 희망자의 송환을 요구했었지만 합의한 바는 없고 6.25전쟁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생사확인 주소확인사업등을 다시 안건으로 내놓았다며 남쪽의 여러 사정도 고려하고 다음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였음.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와 조순덕, 권낙기 공동대표, 노진민 집행위원장이 함께 했음

- 서초동 법원 앞에서 미대사관 진입대학생 구속자 대책위 주최로 '미대사관 진입 한총련 학생구속자 석방촉구 집회'를 열다. 오종렬의장 여는말, 권오헌, 임기란 석방촉구발언, 권오창씨 성명서 낭독순으로 진행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14차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열다. 활동보고, 회계보고와 안건토의등. 안건으로는 회원역사기행, 정순덕선생 간병비문제등 협의 - 이날은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역임했던 이덕우변호사의 인권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도 겸함. 마침 천주교사제단등 105명 대표들과 함께 이북방문을 하고 돌아온 이 변호사 사모님에게 겹친 축하도 하게 되었음
-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박철준)는 풍자노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를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씨를 불구속기소

10 민가협 443회 목요집회 - 여는말 : 조순덕 상임의장, 신진영(한청 정대일사무처장 부인) : '이적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등 한청 기소이유에 대한 부당함 항변, 서경원전의원 : 9/14 지하철에서 미군병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로 둔갑당한 현실과 사건의 진실에 대한 발언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유가족회원들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개정촉구 노상농성에 들어가다. 경찰의 방해저지로 천막을 치지 못하고 노상농성과 1인시위로 대응하고 있음
- 사월혁명회는 향린교회에서 민족학교 제4기 입학식과 첫 강의를 진행. 황건 상임대표의 개강인사말과 권오헌의 축사에 이어 김남식 선생의 '민족, 민족주의' 주제로 강연이 있었음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연세대 대강당에서 11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2002년 대선투쟁 최종방침을 안건으로 상정 토의 끝에 확정하다. 대의원대회는 범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을 실현하고 진보정치 실현을 바라는 민중의 지향을 대변하는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등 5가지 방침을 확정

11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이석기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예정되었으나 증인이 나오지 않아 연기되다. 고광희간사 다녀옴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상농성을 하고 있는 의문사유가족들을 격려방문하고 이어 기독교회관 7층 NCC인권위원회에서 농성중인 한청농성단을 격려방문 - 고광희간사, 권오헌대표 함께 함

12 서대문구 봉은사에서 故 문재룡선생 49재가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스님 집전으로 있었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상규명 김준 고상임위원등 전체 위원들과 유가족, 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진상규명위 주관으로 열렸음. 위원회에서는 위원(7명), 사무국장, 과장등 13명이, 단체, 유가족에서 허영춘 유가족대표, 권오헌 계승연대 대표등 14명이 함께 하여 위원회측의 조사결과에 대한 소견발표와 유족, 사회단체에서 의견을 말하는 순서로 진행. 대체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미흡함에 그 원인으로 조사권의 한계, 피조사 국가기관의 비협조를 들고 있었음
- 압구정동 웨딩홀에서 신원수선생님 3남 신재동님이 신부 김은순님을 맞아 양가 부모님과 친지, 그리고 축하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한청 탄압중단 촉구 토요캠페인〉을 양심수후원회와 국보폐지연대, 구속자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하여 진행하다. 이승미, 양계숙, 변의숙, 이득형, 송창학, 고광희, 권오헌 함께 함
- 양심수후원회원들 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에서 한

청탄압에 항의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을 격려방문. 이득형, 송창학, 이승미, 양계숙, 변의숙, 고광희, 김호 함께 함

- 화곡동 서울프라자 뷔페에서 강담선생님 칠순감사예배와 잔치가 있었습니다. 옥중동지들과 교회성원들이 축하손님으로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십시오. 곽인석, 권오헌 함께 함
-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에 참가할 남측대표단 247명이 오전 8시 종묘공원에서 33명이 불허된데 강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속초항으로 떠남. 속초항에서는 오후 3시 30분 춘향호가 대표단을 태우고 떠나 고성 장전항에 오후 늦게 도착. 북측 관계자의 환영을 받았으며 청년학생통일대회는 13-14일 이틀간 개막식, 축하공연, 체육오락대회, 환영대회, 축하공연, 통일노래한마당, 공동등산등을 하고 14일 5시 고성항을 출발, 속초항으로 돌아왔음
- 2002년 회원역사기행 답사를 노혁, 이창희, 이용준 등이 강원도 철원, 경기도 북부 등을 돌며 1박 2일로 진행함.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팀에서 문병을 다녀옴.
-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마라톤에서 이북의 함봉실 선수가 2시간 33분 35초기록으로 우승

14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구학협) 서울대 장터가 13-18일까지 서울대 대동제 기간에 맞춰 열렸음.

장터가 열리는 동안 이창희 간사가 날마다 장터일을 도와주었고 송창학, 한수정, 이득형, 이승미, 고광희, 한재경, 이일규, 변의숙, 양계숙, 왕준영, 박지윤, 장재영 등 회원들이 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님들 힘내십시오.

-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후원회소식 132호 교정을 보았습니다
-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을 촉구하며 노상농성을 벌이던 유가족들과 추모연대 일꾼등 8명을 불법강제연행 구금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가 2시간 14분 4초 기록으로 우승

15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북남) 여성통일대회에 참석할 남측참가단 365명이 오전 서울을 떠나 속초항으로, 다시 속초항에서 북녘 고성항에 도착했음. 여성통일대회는 남측 300명, 북측 300명, 해외 20명등 620명이 16일 김정숙휴양소 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이어 6·15남북공동선언 관철과 평화를 위한 여성토론회를 비롯, 남북여성통일대회, 기념수예 및 예술전시회, 마음합쳐 꽃줄넘기등 오락경기를 했고 저녁에는 환영만찬이 있었음. 17일엔 부문별 상봉모임, 합동예술공연, 대동놀이에 이어 여성통일대회, 폐막식을 가졌음. 폐막식 다음에는 남북참가단이 손에 손을 잡고 금강산, 구룡폭포까지 등산을 하고 오후 늦게 속초항에 도착,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함

- 오전 영등포경찰서로 의문사법개정촉구 농성을 하다 불법강제연행당한 신정학, 박희순, 김보경, 한현우씨등을 면회하다. 이들은 14일 연행된 뒤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 없이 연행당해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었음(오종렬, 권오헌외 여러분). 한편 강서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다른 4명도 남상헌 계승연대 의장과 이은경 사무처장이 면회했음
- 이마빌딩 대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최로 의문사진상규명 대국민보고대회가 열렸음. 한상범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내빈소개, 황인성 사무처장 사회로 의문사진상규명결과보고(김준곤 상임위원), 진상규명불능의 원인과 향후과제(안병욱위원)등 보고를 들은 다음 패널로 참여한 손석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권오헌(계승연대 상임대표), 정해구(성공회대학교교수), 허영춘(유가협의문사지회장), 이덕우(변호사)순으로 보고에 대한 의견발표가 있었음 - 보고대회를 마친 다음 회의실

로 올라가 다과회를 가지며 환담을 나누었음. 오늘 보고대회에는 오종렬 계승연대 상임대표와 유현석 원로변호사 등 많은 사회단체 대표와 법조인들이 함께 했음

- 미대사관옆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용산운동본부, 미군기지반환연대, 매향리 범대위, 전국민중연대(준) 공동주최로 제37차 미대사관 반미연합집회 열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멀지않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밝힘

16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 촉구 2차대회가 열림. 유가협 의문사가족들과 군의문사가족, 민주화운동상이자모임회와 사북항쟁 관련자, 민주노총, 전교조등 사회단체 성원 100여명이 모여 오종렬의장 여는말, 여의도 농성하다 연행됐던 신정학(신호수 열사 아버님), 군의문사모임 대표, 민주노총 대표등 개정촉구발언과 권오헌대표의 정리발언으로 대회를마침

- 광진구 화양동 한나병원 입원하고 계신 고봉희 할머님을 문병했습니다. 할머님은 방안에서 넘어지시어 오른쪽 엉덩이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시려고 14일 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7일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후원회소식 132호 발송작업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문상봉선생님과 박지윤, 이승미, 김호, 이창희, 권오헌 함께 했습니다
- 유가협 서울대 장터에서 오후 9시에 시사모임을 진행함. 이진, 송창학, 이창희, 박지윤 등이 함께 함. 왕준영 신입회원 환영식을 가짐.

17 민가협 444회 목요집회가 서울대 민가협 장터에서 열리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 주관으로 여는말에 서경순 전상임의장, 국보철, 양심수석방발언 서울대 공대학생회장, 임기란 전 상임의장등 - 이어 성균관대 노래패 아우성의 노래공연등으로 이어졌음 - 통일광장 선생님들 많이 오시어 함께 하심

- 미국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동아태 차관보 방북때 이북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12일이나 지나 새삼스럽게 발표 - 엄청난 핵무기와 탄도탄등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악의 축'이니 핵선제공격'등 전쟁책동을 벌인자가 똥 긴 놈이 성내는 꼴

17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주최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국제적 위상' 국제 학술심포지움이 열렸음 - 분단 반세기와 민주화운동주제의 기조발제(김진균교수)에 이어 1부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2부 한국민주화과정의 국제적 비교, 3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위상과 과제 등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18 범민련 남측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국가보안법폐지,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촉구 3차 금요캠페인'에 함께 하다.

- 서초경찰서는 검찰청 앞에서 전상봉의장 등 한청 간부 구속기소에 항의 1인시위를 하고 있던 한청 회원들을 불법강제연행 조사하고 있었음 - 이 소식을 듣고 서초경찰서로 가 연행된 이상규(비상대책위원장), 허성규(울산청년회), 전병렬(안산청년회), 이상훈(서부청년회), 이승익(나라사랑청년회), 이은영(나라사랑청년회), 김계리(서부청년회) 회원등을 면회하고 경찰당국에 즉각 석방촉구하다. (민자통 소기수, 김일수선생, 민주노동당 최규엽, 이승환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대표)
- 한양대 체육관에서 전태일기념사업회와 한양대법대학생회가 주최하고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전태일의 꿈' '열린 세상을 위한 희망 콘서트' 열리다. 후원회에서는 김현희, 이일규, 박지윤, 김숙희, 신입회원 이경훈, 고광희, 권오헌 함께 함

19 〈국가보안법철폐 토요캠페인〉을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후원회와 국보폐지국민연대, 김대원대책위 등 공동으로 1시간동안 진행하였음 -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한재경, 변의숙, 양계숙, 김현희, 이창희, 박지윤, 김희숙, 이승미, 권오헌이 함께 함

- 동국대학 동국관(식당)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음
- 검찰청 앞에서 한청탄압규탄 1인시위를 하다 서초경찰서로 강제연행됐던 한청회원 7명이 모두 풀려났음. 그러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규씨는 불구속 입건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즉결에 넘겨졌음

- 제8차 남북(북남)장관급회담 정세현 수석대표등 남쪽대표단 48명이 서해직항로를 거쳐 평양에 도착, 남북장관급 첫 전체회의를 열었음

20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한청 이적단체 조작음모분쇄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대회'를 열다.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대회사, 민교협 공동의장의 국보법폐지발언, 이상규 한청비대위원장의 한청탄압규탄발언, 금강산청년학생통일대회에 다녀온 한총련대표 보고, 그리고 양심수가족들의 발언이 있었음. 민혁당사건의 하영옥씨 부인 김소중씨, 민주노동당 홍인분, 고승우 구속대책위대표사례, 한청 정대일씨 부인 신진영씨, 전상봉의장부인 강병식씨 순으로 구속양심수석방 촉구발언이 있었음. 대회는 우리나라, 구로청년회, 청소년단체 '희망'의 문화공연이 있었고 집회가 끝난 다음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도 있었음. 양심수후원회 깃발들고 참가하다. 한재경, 이일규, 김현희, 김숙희, 고광희, 이창희, 조상희, 권오헌 함께 함

21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선재성부장판사) 심리로 한총련 10기 김형주의장의 결심공판이 201호 법정에서 열렸음. 검찰은 김형주의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가입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했고 심재환변호사는 6·15공동선언시대 국가보안법은 존립명분을 잃었으며 이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한총련은 강령개정을 비롯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무죄선고를 요청했음. 김형주의장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공소에 이의제기, 이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남북관계의 변화, 이북의 경제개혁등 변화모습등을 외면한 채 아직도 냉전시각으로 한총련을 보는데 대한 부당성지적, 많은 청년학생들이 이적단체가입혐의로 몰려 가정과 친구들을 떠나 교정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인격과 인권이 짓밟힌채 있다며 이 법정이 또다시 시련을 주는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법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최후진술을 했음. 오종렬의장, 임동규선생, 강위원, 권오헌등 방청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에 간 정세현 수석대표(통일부장관)는 이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남 -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이북도)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인천국제공항 기자실에서 가톨릭병원 장기파업 사태해결과 가톨릭병원의 노조탄압 병원폐업근절을 위한 로마교황청 원정투쟁단의 기자회견'이 있었음
-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주최로 '아프리카 전통공연예술단 노예노동고발 E-6 비자 및 외국인인력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회'를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22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통일연대, 평통사, MD저지공대위, 청·학반전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등 공동주최로 '2003년 국방예산 삭감촉구' 국회앞 집회와 21-23일까지 1인시위를 벌임

- 홍익대 학생회관에서 덕성여대 91학번 박명주씨 무죄석방투쟁을 위한 대책위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다. 덕성여대 학생회와 실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권오헌)등이 함께 하여 25일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함
- 양심수후원회 편집모임이 인사동 만복정에서 열림. 오영순, 오수강, 이승미, 김호, 박정범, 이창희 등이 참여하여 소식지를 평가하고 다음 소식지 발간에 대해 의논함.
- 양심수후원회 회원사업팀은 인사동에서 모임을 갖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검토, 앞으로의 사업방향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변의숙, 노혁, 김숙희, 고광희 함께 함

23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전체회의에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경의선, 동해선의 조속한 연결, 해운합의서, 통행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금강산 면회소 조기 설치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확인사업 적극 지원, 2003.1월 중순 제9차 장관급회담을 서울

에서 개최하는 등 8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 채택발표함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하여 '북한핵개발 시인사태 및 언론보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다. 강정구교수 사회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대표의 '북한핵개발 시인사태의 진상'이란 발제를 비롯, 북핵시인사태에 대한 신문보도분석(김은주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위원장), 북핵시인사태에 대한 방송보도분석(양문석 언노련 민실위 정책실장)등 발제와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이장희(외대교수), 강태호(한겨레신문 통일외교부차장)씨등 토론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리영희 교수의 남북이 가까워지고 있을때마다 미국의 제동이 가해지는 사례를 말하며 미국의 일방적 강압정책을 규탄하는 정리발언이 있었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음. 인권위 이사장에 이돈명 변호사, 인권위원장에 김용수 교수가 뽑혔음
- 미군기지 신설확장 LPP국회비준반대공대위는 미군기지 신설확장될 예정인 의정부, 평택, 이천, 군산지역 주민등이 함께 한 가운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회앞에서 잇달아 열고 LPP협정 파기를 주장

24 서울지법 합의 21부(재판장 박용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의장등 간부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첫 재판이 311호 법정에서 열렸음. 이날 첫 재판에서는 한청 간부들의 모두진술만으로 마쳤음. 전상봉의장은 한청이 적규정 기소에 대한 전반적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대일 사무처장은 한청가입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말하며 애국적이고 모범적인 청년운동을 이적으로 모는데 대한 반박을 했고 이승호 조통위원장은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연방제통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정당성을 주장 - 재판이 끝나고 한청회원들과 방청했던 사회단체 성원들은 법원 계단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이종린, 오종렬, 권오헌대표의 검찰규탄발언과 이상규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투쟁계획등 발표

- 민가협 445회 목요집회 - 여는말 : 서경순 전 상임의장, 배혜정(덕성여대 4년) : 10/13 학교앞에서 부당하게 연행한 박명주씨를 10일간 조사한 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억지스레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사건에 관한 발언, 소병선(홍인분 · 고승우대책위 간사) :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홍인분, 고승우씨 사례, 홍은숙(한청 구속자 석방대책위) : 한청 구속자 첫 재판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 권오헌(민가협 공동의장) : 지난 한 주 사회적이슈였던 여러 사건발표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얘기하고 일절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태도를 꼬집고 시민들의 동참호소
- 향린교회에서 4월혁명회 제4기 민족학교 강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강의가 있었음
- 여의도 국회(국민은행)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두 여중생 살인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25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씨 재판이 311호 법정에서 열려 증인심문을 하게 되다. 그러나 증인으로 강제구인돼 나온 박금석씨(변호사)는 강제구인 자체를 인권침해로 본다며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힘

- 검찰청 앞에서 덕성여대 91학번 박명주씨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덕성여대 총학생회와 민가협, 실천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민자통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사회로 임기란, 진관, 김창규목사님의 석방촉구발언과 권오헌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으로 마침 - 이날 모인 사회단체들과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박명주씨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 준비위를 구성했음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미 제네바핵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는 핵개발계획의 포기를 거부하고 자주권인정, 불가침을 확약하며 경제발전에 장

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 고 발표

26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용산운동본부주최로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전면백지화,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주한미군 규탄대회가 열림

- 종묘공원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주최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제2회 전국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제2기 출범식을 가졌음. 경산, 대구, 김천, 포항, 여수, 순천, 전남 불갑산, 부산, 예천, 충북, 산청, 마산, 진주, 함안, 함양 등지에서 올라온 유족들은 이태준 상임대표를 연임시켰음
- 서울 인사동 공연마당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단체들이 '국제반전행동서울대회' 를 가졌음
-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북의 경제사절단 18명이 제2차 남북(북남)경제협력추진위 합의에 따라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에 오다
- 매오로시에서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신 정순덕 선생님께 병문안 다녀옴

26~27 양심수후원회 2002회원역사기행이 '우리 민족 통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지역등 역사유적과 민족문화유산을 찾아서 26-27일 사이에 진행되었음. 장기수선생님, 후원회원등 모두 66명이 함께하여 26일엔 고려말-조선조초에 걸쳐 200여년간 국가지원으로 건립되어 폐허로 남아 있다가 발굴되어 사적 12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회암사터를 답사하고 천보산으로 올라가 지공, 나옹, 무학대사의 부도등을 둘러보며 한상권교수의 설명을 들었음. 이어 포천-38교-운천-신철원을 거쳐 삼부연폭포를 답사함. 20여미터 높이와 주변 경관이 빼어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그린 표본이 되었다고 했음 - 다시 고석정 가까이에 있는 '기와집' 에서 두부 전골로 저녁식사를 하고 고석정 유원지안 그린회관에 짐을 풀고 9:40분부터 강의시간 - 이창희간사 사회로 권오헌대표의 인사말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북핵관련 강경정책등 시사문제 이어 한상권교수의 '궁예의 미륵사상 및 철원지방역사를 중심으로 통일역사 강좌가 있었고 10:50분부터는 함께 한 66명의 소개시간, 뒷풀이가 자정 넘어까지 이어졌음. 27일도 아침 7시 일어나 고석정등 한탄강 경관 산책, 아침식사뒤 답사떠남 - 먼저 간 곳은 도피안사(倒彼岸寺). 신라 경덕왕 5년(865년) 고승 도선국사가 1500여 대중과 함께 철불과 3층석탑을 세워 창건한 고찰이었음. 이 절의 대적광전에는 국보 63호로 지정된 철조 비로자나좌불상이 있고 앞마당에는 보물 223호 삼층석탑이 있었음, 이곳에서도 한상권교수의 해설이 있었음 - 다시 옛 철원시가지로 떠남. 동족상잔의 아픈 상처를 안고 의연히 서 있는 옛 철원군 노동당사를 답사함. 철근없이 벽돌을 쌓아 지었는데 그 많은 폭격, 포격에서도 뼈대가 남아 있어 그 견고함을 보여주었음. 이어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는 곳으로 떠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등 허리잘린 현장을 가슴아프게 둘러봄. 이곳에서 철원 들의 엄청난 넓이를 보게 됨. 11:10분 신탄리역을 거쳐 태풍전망대(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로 옮겨 가장 넓은 휴전선 안팎을 보게 됨 -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800미터밖에 되지 않는 휴전선상 가장 가까이 남과 북이 맞서 있는 곳이기도 했음. 백마고지에서도 태풍전망대에서도 출입절차가 95년 역사기행때보다 매우 간소했고 휴전선 이북의 북측초소에서 보내는 대남방송이 없었고 주변에 선전유인물이 보이지 않았음.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태풍전망대 일대는 바로 임진강으로 휴전선이 그어진 곳이기도 했고 그 임진강은 무척 맑고 푸르렀음 - 다시 연천군 미산면 징파나룻터 답사 - 점심식사를 한 다음 임진강가에 있는 숭의전 둘러봄. 고려 왕건 태조등 여덟명 임금과 정몽주등 16명 충신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음. 이어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로 떠남. 1979년 서울대등 여러 대학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작업을 하여 구석기시대 석기 등 유물을 발굴하고 사적 268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했음. 5:30분에는 파주 적성향교와 칠중성을 답사하고 6:40분에는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 바로 미군장갑차에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깔려 숨진 곳에서 (추모비가 세워졌음) 억울한 죽음에 명복을 빌고 부시사과와

2002년 10월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 세우는 일, 살인부대폐쇄, 미군철수투쟁을 다짐하게 됨 - 7:20분 현장을 떠나 양주군청-의정부-수유역으로 오는 길에 1,2호차에서 각각 기행평가시간을 가짐. 1호차에서는 김은아, 정향숙 처음 기행에 참여하신 분과 장기수 문상봉, 신광현 선생님과 김호현님께서 평가를 하고 권오헌 대표의 정리말로 마침. 2호차에서는 역사기행에 처음 참여한 이일규님, 장기수 서옥렬 선생님, 회원 김현희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수유역에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졌음

27 김대중, 조지 · 부시, 고이즈미 · 준이치로등 세 정상은 멕시코에서 있은 제10차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정상회의에 앞서 이북의 핵개발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다짐하는 3국공동발표문 발표.

28 낙성대 '만남의 집'에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서울관악자활후견기관에서 보내주신 도우미 자원봉사 아주머님이 오심. 12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로하신 선생님들께 자원봉사하기로 하심. 감사합니다.

29 화양리 한라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계신 고봉희 할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17일에 수술을 받으셨고 22일엔 중환자실에서 419호 일반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할머님은 미음조차 잡수시지 못해 몹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맑아 사람을 알아보시고 반가워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공대위 주최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 여의도 국회앞에서 노동법개악등 3대악법 국회통과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있었음. 이어 민주노총은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감
- 허원근일병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준장)은 허일병 사망때 노중사의 총기오발이 없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를 뒤집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음.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곧바로 특조단이 참고인들의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며 반박

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원 주관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냉전법령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음. 김명기(천안대 석좌교수)교수 사회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가보안법의 현주소와 개정방안(이장희 교수),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교류협력법의 현주소와 개정방안(최철영 대구대 법대 교수) 발제가 있었고 김승교(변호사),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오완호(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장명봉(국민대 교수), 조국(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음

-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 촉구를 요구하며 21일째 한나라당사앞에서 노상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가족 농성단을 격려방문했습니다. 송창학, 김숙희, 박지윤, 김미성, 고광희,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31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촉구 농성장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자회의 열림 - 특별법개정촉구 관련문제 협의(오종렬, 남상헌, 조찬배, 권오헌외)

- 민가협 446회 목요집회 - 여는 말 : 조순덕 상임의장, 조찬배(유가협회장), 신정학(유가협 의문사지회) : 10/10 의문사특별법 개정촉구 노숙농성을 시작해야만 했던 이유와 현재 그곳의 상황, 의문사법 개정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 협조당부,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 : 한청 구속자, 허원근일병 사건에 대한 군당국의 발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보건의료노조 등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시민들에 알려냄
-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WTO쌀수입개방반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저지 전국이장단 기자회견 및 11.13 30만 농민대항쟁 투쟁선포식을 갖다
-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촉구를 위해 노상농성을 하고 있는 의문사유가족과 추모단체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자전거시위를 벌였음
-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말'지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보냄
- 정순덕 선생님께 간병비를 보냄
- 양심수 83명에게 영치금을 보냄